

TV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like '관찰카메라 24시간', '신대동여지도', '뉴스특보', etc.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World News Review', '성공 인생 후반전', '미연미이로봇', 'EBS 뉴스', etc.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like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etc.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like '2014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천철한 수학 의힘풀이 5-1', etc.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3일(음 4월 15일 甲申)

36년생 가치를 극대화 시키자. 48년생 많은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60년생 하등의 지장이 없겠다. 72년생 불협화음은 많은 것을 앗아갈 수도 있느니라. 84년생 관리만 잘 한다면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51, 05

42년생 과감하게 버려야 일목요연해지느니라. 54년생 아무리 밭 비동질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겠다. 66년생 혹독한 겨울 뒤에 화사한 봄날이 찾아드는 격이다. 78년생 바로 코앞에 있는 이가 그 장본인이다. 행운의 숫자 : 56, 96

“비판 자유지만 못매 맞을 작품 아냐”

영화 ‘역린’ 인간적인 정조 役 헌빈

최근 박스오피스 정상을 질주하는 영화 ‘역린’ 속의 젊은 왕 정조는 오묘한 캐릭터다. 얼핏 철저히 상상으로 직조된 인물 같은데 따져보면 당시 그를 둘러싼 시대적 상황이 꽤나 반영된 것도 같다.



은 극에서 개혁적인 성향의 명민한 젊은 군주 정조를 연기했다. “정조가 힘겨운 현실에서 자신의 사람을 지키려 하고 뭐가 이루어 노력하는 모습을 담고 싶었어요. 그러고보니 ‘정조’보다 ‘이산’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작품의 여러 장면 가운데 특히 그의 조각같은 ‘등근육’이 노출되는 장면이 호평을 받았다. 왕의 모습치고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실제 정조가 무예에 뛰어났던 점을 생각하면 수긍되는 측면도 있다.

“(연기에 대해) 계속 등근육 얘기만 나오더라고요.(웃음) 사실 저도 역사 속 왕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었죠. 햇볕도 안 받고 늘 좋은 것만 드셔서 살도 조금 찌셨을 것 같고요. 책에서도 왕의 ‘등근육’ 이야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는 하지만 “시나리오를 거듭 읽으니 정조가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 굉장히 처절하고 철저히 살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힘겨운 환경에서 왕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 장면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신세를 단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기본적으로는 작가가 쓴 ‘등근육이 세밀하다’는 지문 한 줄의 영향이 컸어요. 일부러 멋있게 보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웃음)”

앞서 영화가 개봉한 직후 다소 비판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줄거리상 정재영, 조정석 등 여러 배우에게 시선이 분산되다보니 ‘산만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는 당시 완성된 작품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마주한 반응이라 조금은 당황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곧이어 영화의 장점을 차분히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 인물에 집중하다가 다른 인물로 전환되니 감정이 끊겨 싫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감독님이 캐릭터에 집중했는데 드라마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과 같은 전개가 맞다고 생각해요. 볼 때마다 새로운 장면이 보여서 좋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못매’ 맞을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각의 비판에도 영화는 최근 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2주째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흥행 가도를 달리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할까.

“기본적으로 정조라는 왕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규 감독님의 스타일리시한 영상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 좋은 배우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보는 분들이 각각 다른 생각으로 관람하시는 것 같아요.”

작품이 흥행에 성공하며 최근 극중 등장하는 ‘중용 23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졌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이 구절은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는 정조의 의지를 담고 있다.

“구절 자체가 너무 좋아요. 마음에 강하게 남았어요. 현실에서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생각하면 힘이 나죠. 메시지를 관객의 가슴에 오랜 시간 머무르며 힘을 드리면 좋겠어요.”

작품을 통해 가장 받고 싶은 평가는 무엇일까. 그는 생각에 잠기더니 “(기존과) 다른 정조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싶고, ‘헌빈이 사극에서도 괜찮은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듣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릴 때 과감하게 해병대 입대를 택했던 그가. 공백기에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을 보며 격정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생각 해본 적 없다. 나도 열심히 하면 좋게 봐주시겠지 생각했다”고 성숙한 답변을 내놓는다.

“출연하는 작품을 보는 동안 기본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배우, 다른 생각이 나지 않게 하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유희열 세월호 추모곡 ‘엄마의 바다’ 무료 공개



현악 사중주 연주곡...김윤아 허밍 참여

싱어송라이터 유희열이 세월호 참사 추모곡 ‘엄마의 바다’를 12일 음악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한다. 이날 소속사 안테나뮤직에 따르면 유희열은 세월호 참사 사고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진 가운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연주곡 ‘엄마의 바다’를 만들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져 나가며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도 올라 화제가 됐다. 당초 유희열은 지난주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이 곡을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결방되면서 온라인에 공개했다. ‘엄마의 바다’는 피아노와 현악 4중주의 연주곡 버전과 악기를 더 추가하고 자우림 김윤아의 허밍을 마지막에 더한 버전 등 두가지로 공개된다. 소속사는 “이 곡은 우울하고 고통스러워 잠 못 이룰 때 얼굴을 파묻고 심장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엄마의 품’을 테마로 만들어 위로와 공감을 준다”며 “유희열은 동요를 부르듯 이 곡은 지난 10일 밤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돼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 느낌”

지오디 손호영...팬들 성원에 감사

9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 그룹 지오디의 손호영(34)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복귀 소감을 밝혔다. 손호영은 지난 10일 공식사이트 다이어리에 ‘호영이 왔어요~’란 제목의 글을 올려 최근 발표한 지오디의 신곡 ‘마운드리 새끼’에 보내준 팬들의 성원에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운오리새끼”는 발표된 지 4일째인 11일까지 여러 음원차트 1위를 기록 중이다. 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음원이 가져처럼 나오게 됐는데 너무나 큰 반응이 있고 좋아해 주셔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도 모르겠다”며 “요즘엔 힐 해도 겁부터 난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다들 너무나 반갑게 반겨줘서 진짜 다행이고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느낌도 살짝 낫다”며 “뱀바들끼리도 얘기하면서 어쩔 우리 하나도 안 변했느냐며 웃기도 했다”며 “아무튼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고 보고 싶었던 말하고 싶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힘차게 웃으며 지낼 수 있게 열심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하며 함께 일어나자”고 덧붙였다. 올해로 데뷔 15주년을 맞은 지오디는 이번 신곡에 이어 오는 7월 정규 앨범을 발표하고 같은달 12~13일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연합뉴스